

벤젠, 5월 수출단가 22.2% 하락!

한국은행, 석유화학-고무제품 3.3% 떨어져 ... 세계수요 부진으로

5월 수출물가가 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제품,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3년 수출물가는 4월 3.3% 하락에 이어 또다시 5월 2.4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공산품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금속1차제품이 0.7% 올랐으나 미국의 경제회복 지연 및 SARS 확산 등에 따른 세계적인 수요 부진과 원화환율 하락으로 섬유·의복 및 가죽제품,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,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이 내림세를 보여 전월대비 2.4% 하락했다.

석유화학 및 고무제품(-3.3%)은 계절적인 비수기가 도래하고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요부진이 이어지면서 벤젠 -22.2%, Polyester -17.9%, PP -6.5%, Polyester섬유 -6.3%, ABS -6.2%, 경유 -5.2%, 나프타 -3.3% 등 대부분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하락했다.

섬유·의복 및 가죽제품도 중국 등 주요 거래상대국의 수요 감소로 Polyester직물, 파일편물, 도포직물, 셔츠, 가공양피 등 3.3% 떨어졌다.

수출물가 등락률(2003.5)

(단위: %)

구 분	등락률	주요 품목
섬유·의복/가죽제품	-3.3	Polyester직물(-6.0), 가공양피(-9.2), 파일편물(-2.4), 도포직물(-2.4)
석유화학/고무제품	-3.3	Polyester(-17.9), 경유(-5.2), Polyester섬유(-6.3), 벤젠(-22.2), PP(-6.5), ABS(-6.2), 나프타(-3.3)
금속1차제품	0.7	아연도강판(2.5), 열연대강(1.1), 동박(5.4), 금괴(8.7), 강관(-2.4)
일반기계/장비제품	-2.0	컴퓨터부품(-2.4), 컴퓨터(-2.4), 모니터(-1.8), 에어컨(-2.4)
영상·음향/통신장비	-4.7	D램(-13.7), 브라운관(-3.7), 무선송수신기(-3.2), DVD 플레이어(-8.0)
운송장비제품	-0.1	화물자동차(-2.4), 자동차부품(-2.4)

† 전월대비

또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품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요가 줄어 D램, 브라운관, TV수상기, 무선전화기 등이 4.7%,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과 운송장비제품도 각각 2.2%와 0.1% 하락했다.

금속1차제품은 전반적인 수요부진으로 스테인리스강관, 강관, 특수강봉강 등은 하락했으나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아연도강판, 열연대강, 동박 등의 제조비용이 올라 0.7% 상승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6/19>